



순천만정원박람회장 그림같은 튜립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3일 앞둔 17일 박람회장내 호수정원앞에 짙은색을 형상화 한 조형물과 튜립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순천=최현배기자 choi@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5강-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꿈 좇아 76세에 감독 데뷔 늘 새로운 도전을 꿈꾸라”

“70대 중반을 넘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수 없으나, 그래도 끝까지 창의적인 일에 도전할 것입니다.”
지난 16일 광주시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다섯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동호(77)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영화는 나의 꿈’ 주제의 특강에서 “늘 새로운 도전을 꿈꾸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키워낸 김 위원장은 76세이던 지난해 단편영화 ‘주리(JURY)’를 제작, 감독으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15년 동안



안 지켜온 부산국제영화제를 떠난 그는 황혼을 준비해야 할 나이에 꿈을 좇아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김 위원장은 “공직생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거쳐 제3의 인생을 살지만, 아직도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고픈 열정 때문에 영화연출을 하게 됐다”며 “올해 단편영화를 하나 더 만들고 내후년엔 장편 제작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술 더 떠서 “지난 2010년 출간했던 ‘영화, 영화인 그리고 영화제’(문학동네) 같은 책을 올해 2권 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미술에 도 조예가 깊은 그는 “촬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이 받아준다면 제자로 입문해서 그림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한 리더십 함양은 물론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연구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또 차질

‘분신 사태’ 여파...노조 모든 협의 중단 부분과업 돌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수용 안되면 내일부터 전면과업”

기아차 광주공장이 사활을 걸고 있는 62만대 증산프로젝트 가동이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 16일 발생한 사내 하청 분회 조합원의 분신 사태와 관련해 광주공장 노조는 17일 부분과업에 돌입하는 한편 사측과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사측이 특별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전면과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8면>
전국급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17일 광주2공장 복문에서 350여명의 조합원 및 분회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원의 분신 사태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집회를 열고 부분과업에 돌입했다.
광주지회는 오전 근무조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3시40분부터 1시간 앞서 2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고, 오후 근무조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날 0시20분부터 1시간 동안 부분과업을 벌였다. 지난해 9월 초 단체교섭 당시 진행한 부분과업에 이어 7개월 만에 공장 가동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광주지회는 사측의 모든 교육과 부서협의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생산물량 감증을 실시한 뒤 지난 1일 증산관련 노사대책위원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62만대 증산과 관련해 생산과 설비, 인력배치, 복지 등 일정 및 현안에 대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협의를 진행해 오다가, 보름이 넘게 협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던 상

황에서 ‘분신 사태’로 증산체제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증산이 합의되면 광주2공장의 생산량은 현행 46.1UPH(시간당 생산대수)에서 66UPH로, 3공장 생산량은 23.1UPH에서 26UPH로 각각 늘어나며 연간 생산량은 현재 50만대에서 62만대로 증가한다.
최근 전일노조와 현 노조의 갈등으로 대의원대회 일정이 길어지면서 증산 협의가 지연된 데 이어 이번 사태가 협의의 중단을 불러오면서 62만대 증산프로젝트는 당분간 앞날을 기약하지 못할 처지에 몰렸다.
광주지회 관계자는 “18일까지 사측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특별 교섭을 한 뒤 사측이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전면 과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회는 앞서 ‘분신 사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현대·기아차 자본은 이미 불법으로 간주된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6일 분신 시도 뒤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된 사내하청 분회 조직부장 김모(37)씨는 팔과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이날 오후 화상전문병원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지역공약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소외지역 배려”

차대통령, 야당 간사단 간담회...대선공약 이행 박차

박근혜 대통령은 광주·전남 등 지역 대선공약과 관련,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책적 배려를 해서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단과 만찬간담회에서 “국가 예산은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호남에서는 B/C(비용편의 분석)만 따지면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통합당 이윤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의원이 전했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지역공약 행거기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그동안 상당수의 지역사업에 대해 B/C 검토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향 제시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은 17일 청와대 기자회견과 만나 “박 대통령이 최근 제주감귤문제를 시작으로 지역공약 행거기를 시작했다”면서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단과 만찬 과정에서 지방공약 실천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역공약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추경안 편성과 5월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준비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치고 지역공약 예산 검토에 들어가도록 요청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공약의 경우 그 범위와 내용에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아 내용이 다듬어지기 전에 검토하기 힘들다”며 “해당 부처와 지자체와 빨리 협의해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OC건설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유 수석은 “지방소비세를 포함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5월말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 수석은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해 “위원장과 위원 후보를 선별해 놓은 상태고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지 등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작업을 마치고 위원을 선임하는 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기로 했다”며 “내일(18일) 관련 상임위원 안전행정부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4월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와 함께 “전 정부에 있었던 지역발전비서관이 없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발전비서관 신설을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빛어울수 믿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상수원은 무등산과 백야산의 청정한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유입되지 않은 좋은 조건을 기본으로 자동으로 정수약품을 주입하고 수질관리기 철저하여 깨끗합니다.

- 현재, 상수원은 좋은 조건의 수질상태 유지
- 미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한 수질기준에도 적합한 물
-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수질연구소에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생산

빛어울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돗물 절약 실천 사항

- 샤워, 세수, 설거지, 세차 등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시에는 받아서 사용한다.
- 수도꼭지 등 누수방지를 위해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절약형 샤워꼭지를 부착한다.
- 하수구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않는다.
- 샴푸, 린스,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인다.
- 한번 사용한 물을 재 사용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s://water.gjcity.net

광주 대표 상수원 - 동복호